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0일
코스피지수	2262.64	▲ +12.07
코스닥지수	683.47	▼ -4.94
환율(원·달러)	1158.10	▼ -1.30

금융 | 일파만파 커지는 라임사태, 고민 깊어지는 금융가

환매 중단 1조6679억 원, 누가 책임지나?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매입 의혹 시중은행·증권사 등 법적대응 예고 금융위, 2월 회계 점검 후 대책 발표



2019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설명하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감정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환매 중단은 상품이 만기되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유동성 악화로 '테티스 2호', '플루토 FI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1조5587억 원 규모의 157개 자(子)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도 15일 '크레디

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만약 이번 환매 중단까지 확정되면 피해 펀드는 173개로 늘어나고, 금액도 1조 6679억 원에 달한

다. 현재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이 원인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월 중순 경 회계실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환매 중단을 두고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태해결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상품 운영을 의심하면서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가 포함된 펀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

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운용사의 불법 행위나 위험 여부를 미리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금융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은 투자 위험도가 3,4등급으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고 상품 판매 과정도 복잡하지 않았다며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의 위험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위험이 예고된 폭탄을 대채없이 방치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질서정연하고 공정하게 환매상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2월 회계실사 결과 점검 후 향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전경훈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황성우 종합기술원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왼쪽부터).

2020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단행 전경훈 IM부문 부장 포함 4명 승진

삼성전자는 20일 사장 승진 4명, 위촉업무 변경 5명 등 2020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사장 승진자는 전경훈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황성우 종합기술원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이다. 위촉업무 변경은 김기남 DS부문장, 김현석 CE부문장, 고동진 IM부문장, 노태문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이인용 CR담당 사장이다.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은 각 부문과 사업부간 시너지 창출 및 신사업·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후진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성장 주도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성과주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동점포에서 신권 교환”...시중은행, 설 연휴 고객 불편 줄인다

무료 귀중품 보관·환전 이벤트도

시중은행들이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마련했다.

먼저 고속도로 버스에서 버스형 이동식 점포를 운영한다. 대형버스를 개조해 자동화기기에서 신권 교환, 현금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

리은행은 23,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휴게소에서,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에 집을 비우는 고객들을 위한

귀중품 보관 서비스도 있다. NH농협은행은 29일까지 대여금고가 있는 194개 영업점에서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한 환전 이벤트도 실시한다. KEB하나은행은 2월 29일까지 '겨울여행 환전 종합선물 세트' 이벤트를 통해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



우리은행의 버스형 이동식 점포. 사진제공 | 우리은행

는 하나멤버스 고객 증 추첨을 통해 1만 하나머니를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한국타이어-레알마드리드 파트너십 연장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구단 레알마드리드와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2022-2023 시즌까지 연장한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조인식(사진)에서 한국타이어 구주분부장 이상훈 전무와 레알 마드리드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스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타이어는 레알 마드리드와 마케팅 파트너십을 2016년 처음 맺고 2016-2017 시즌부터 브랜드 마케팅을 해왔다.

마케팅 파트너십을 연장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구장 중앙전광판에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라리가와 스페인 국왕컵 코파 델 레이 등 레알 마드리드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 설 이후 냉장햄 9.7% 인상

CJ제일제당이 냉장햄, 소시지, 베이컨 등 26개 품목의 가격을 2월13일부터 평균 9.7%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냉장햄 가격 인상은 2014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주요 제품별로 보면 햄스틸 베이컨이 14%, 백설 그릴 비엔나가 14%, 더 건강한 그릴 후랑크가 7% 씩 오른다. 냉장햄용 미국산 앞다리 살과 베이컨의 주 원료인 유럽산 삼겹살은 2015년 대비 각각 25%와 42% 가격이 올랐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사육두수 급감으로 수입량이 늘면서 세계 돼지가격이 상승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교육·파출은 11월에 옮겨 실립니다.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 정·재계 조문 행렬 이어져

20일 이낙연·이재용 등 조문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에 20일 정·재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빈소를 지켰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

정계 조문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도 조문했다. 이날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조기를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19일 신격호 회장의 타계와 관련해 "고인이 롯데그룹을 성장시키며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은 지금까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뉴스스

도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신 회장의 별세 소식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발인은 22일, 장지는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이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오! 그레놀라’의 변신...오리온, 브런치 카페 오픈

셰프가 개발한 다양한 메뉴 선보

오리온은 마켓오 네이처 ‘오!그레놀라’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는 ‘마켓오 네이처 그레놀라·브런치 카페(사진)를 마켓오 서울 도곡점 1층에 오픈했다.

마켓오 네이처는 현대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론칭한 간편대용식 브랜드다. 현재 국산쌀과 호밀, 귀리 등을 가공해 만든 ‘오!그레놀라’ 5종(검은콩, 과일,

야채, 카카오, 딸기)과 ‘오!그레놀라바’ 3종(검은콩, 무화과베리, 단호박고구마)을 생산하고 있다.

마켓오 네이처 그레놀라·브런치 카페에서는 마켓오 레스토랑 셰프가 메뉴 개발에 참여해 오!그레놀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내놓는다. 대표 메뉴로는 그레놀라 옷을 입혀 오븐에서 구운 닭가슴살을 양상추와 함께 즐기는 ‘그레놀라 치킨 샐러드’, 밀가루없이 그레놀라로만 문져 오븐에서 구운 ‘그레놀라 쿠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마켓오 네이처 브레드’ 및 ‘베이컨 치즈그



리앙’과 ‘파니니 세트’ 등이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1인 가구, 워킹맘, 20~30대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국,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대한민국이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피투르 국제관광박람회’(FITUR 이하 피투르 박람회)에 주빈국(Partner Country)으로 참가한다. ‘피투르 박람회’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160여 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 및 관광부처 고위층 등 25만 명이 이상이 참여한다. 2017년에는 아르헨티나, 2018년에는 인도, 2019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예년보다 6배 큰 320㎡ 규모의 관광홍보관을 꾸린다. 김재범 기자